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LIG아큐버 (073490)

매출 및 이익 성장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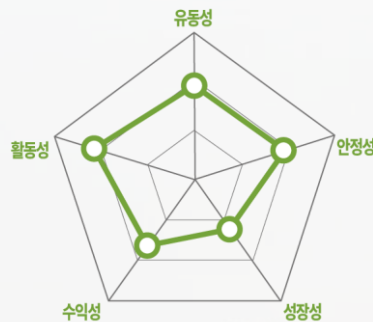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LIG아큐버는 오랜 기간 통신용 시험 장비, 계측장비 사업을 영위한 기업. 2020년 최대주주가 LIG넥스원으로 변경되며 동사는 LIG그룹 계열사로 정식 편입. 2023년부터 방산 사업을, 2024년 Automotive 사업을 본격화하며 사업 다각화 중
- 투자포인트는 1)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실적 회복 기대, 2) 방산 제품군 高 성장 기대, 3) Automotive 사업부문 캐시카우 역할 지속 기대
- 리스크 요인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지연될 시 동사 실적 및 전망에 부정적일 가능성
- LIG아큐버는 2026F PER 21.3배로 거래 중. 향후 국내 통신 3사의 5G SA 상용화 투자가 본격화되어 무선망 최적화·빅데이터/AI 솔루션 등 핵심 제품군 실적이 회복되고, LIG D&A를 기반으로 한 방산 매출의 고성장도 이어진다면 동사 기업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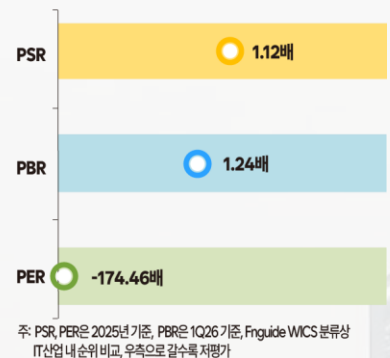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LIG아큐버는 통신용 시험 장비 및 계측장비 전문기업

LIG아큐버는 통신용 시험 장비 및 계측장비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2023~2024년부터 방산, Automotive 사업 확대 중.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이동통신 사업부문 52.3%, Automotive 사업부문 47.7%

2H26, 국내 통신사들의 5G SA 네트워크 투자 본격화 기대

5G SA(Standalone)는 5G 전용 코어망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슬라이싱, 초저지연 서비스 등 5G 핵심 기능을 구현. 글로벌 5G SA 투자 및 상용화는 5G 시장 성장과 함께 본격화 추세. 2H26 국내 통신사들의 관련 투자 확대 기대. 한편, 6G는 AI-native한 지능형 통신 인프라 구현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서, 아직 국가/기업별로 기술 연구 단계. 6G 상용화 시기는 2030년 전후를 전망. 관련 기업들은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활발히 연구개발 중

LIG아큐버, 202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성장 기대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861억 원(-1.9% YoY), -11억 원(적자전환 YoY) 기록. 마진이 좋은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솔루션 제품군, 통신 T&M 제품군 매출의 감소 등으로 실적 부진. 2026년 실적 회복을 기대. 2026년 연간 매출액 2,227억 원(19.7% YoY), 영업이익 105억 원(흑자전환 YoY) 예정. 무선망 최적화, 방산 제품군 위주로 성장 재개 뚜렷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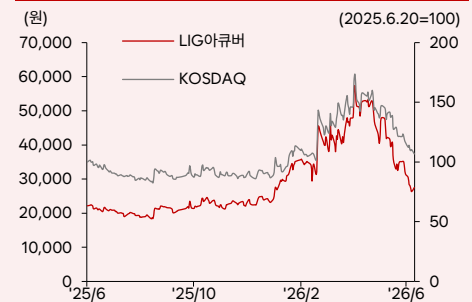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329	1,374	1,897	1,861	2,227
YoY(%)	46.5	3.4	38.1	-1.9	19.7
영업이익(억원)	143	103	24	-11	105
OP 마진(%)	10.8	7.5	1.3	-0.6	4.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35	108	25	-12	99
EPS(원)	1,996	1,430	333	-158	1,307
YoY(%)	-11.3	-28.4	-76.7	적전	흑전
PER(배)	17.0	18.5	62.1	N/A	21.3
PSR(배)	1.7	1.5	0.8	0.9	1.0
EV/EBITDA(배)	8.9	7.6	12.7	29.8	10.2
PBR(배)	1.7	1.2	0.9	1.0	1.2
ROE(%)	10.8	7.3	1.5	-0.7	5.8
배당수익률(%)	1.0	1.3	0.6	0.4	0.4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7/01)	27,850원
52주 최고가	57,400원
52주 최저가	18,340원
KOSDAQ(07/01)	929.35p
자본금	38억원
시가총액	2,11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8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31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150억원
외국인지분율	8.38%
주요주주	(주)LIG 외 6인 30.1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31	24.3	30.4
상대주가	-24.5	23.8	10.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LIG아큐버는 통신장비 전문기업. 방산, Automotive 사업으로도 사업 영역 확대 중

**LIG아큐버는 통신용 시험 장비 및
계측장비, 스몰셀, 방산,
Automotive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장비 전문기업**

LIG아큐버는 통신용 시험 장비 및 계측장비, 스몰셀(Small Cell, 소형기지국), 방산 사업, Automotive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통신장비 전문기업이다.

2000 ~ 2010년 기간은 LIG아큐버에게 태동기였다. LIG아큐버는 2000년 9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사업 초기 통신망 중 무선망 품질 측정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4년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망 최적화 장비 전파기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09년 해외 판매법인 'Accuver', 'Accuver Americas', 'Accuver EMEA', 'Accuver APAC'를 설립하며 해외 사업 기반을 다졌다.

2011 ~ 2022년 기간은 LIG 아큐버에게 성장기이자 변화의 시기였다. 2012년 동사는 대한무역협회로부터 2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14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HSMS 18001, OHSAS 18001 등을 획득하기도 했다. 2016년 LIG아큐버는 'Innowireless India'도 설립, 인도 시장 해외사업을 강화했다. 2017년 동사는 스몰셀 솔루션 사업부문에 대해 단순 물적분할을 실시하여 '큐셀네트웍스'를 설립하였다.

2018년 동사는 지배구조 관련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18년 11월, 케이씨지아이헬리오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LIG넥스원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동사는 LIG그룹 계열회사로 정식 편입되었다. 2022년에는 주식회사 엘아이지로 다시 동사 최대주주가 변경되기도 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은 LIG아큐버에게 사업 다각화 시기라고 명명할 수 있다.

동사는 LIG그룹에 편입된 이후 여러 사업 다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2023년부터 LIG그룹의 주력 사업과 연관된 방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4년부터는 인수합병을 통해 Automotive 사업을 성장시켰다. 즉 동사는 2024년 1월 주식회사 명성라이픽스 및 주식회사 웨이티즈 2개사를 전격 인수했다. 한편, 2025년에는 2017년에 분할시켰던 큐셀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였고, Accuver Americas와 Accuver Co., Ltd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100.0%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

2026년 3월에는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동사는 사명을 기존 이노와이어리스에서 'LIG아큐버'로 변경했다. 이는 그룹사 아이덴티티를 통합하고, 위성통신 등 신사업 영역 확장을 종합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이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025년말 기준 총 9개사**

LIG아큐버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025년말 기준 총 9개사이다.

이중 Accuver APAC Limited(동사 지분율 100.0%) 등 7개사는 해외법인으로,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 판매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외에 2024년초 인수한 2개 기업 명성라이픽스, 웨이티즈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다. 명성라이픽스(동사 지분율 100.0%)는 1991년 설립된 차량용 반도체 유통전문 기업으로, 2024년 1월 동사가 인수하였다. 명성라이픽스는 동사 Automotive 부문 매출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웨이티즈(동사 지분율 57.5%)의 경우 2015년 설립된 V2X 시

협장비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15억 원이다. 웨이티즈는 차량간 통신 솔루션인 V2X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아직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매출액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2025년 연매출액 15억 원 기록). LIG아큐버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2024년 1월 웨이티즈를 인수하였다.

LIG아큐버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기업명	설립일	지분율	주소	주요사업	자산총액(백만 원)
Accuver APAC Limited	2009.09.	100.0	Office Unit No. 2317, Level 23, Tower 1, Metroplaza, 223 Hing Fong Road, New Territories, Hong Kong SAR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판매 및 서비스업	10,293
Accuver Americas, Inc.	2009.08.	100.0	500 N. Central Expressway, Suite 210, Plano, TX, 75074, USA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판매 및 서비스업	24,555
Accuver Co., Ltd.	2011.04.	100.0	9F YP Toranomon 2-35-2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105-0003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 판매 및 서비스업	12,154
Accuver EMEA Limited	2009.09.	Accuver APAC Limited 100%	Unit 20, Building 6, Croxley Green Business Park, Hatters Lane, Watford, WD18 8YH, United Kingdom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 판매 및 서비스업	11,846
Accuver EMEA sp. z o.o.	2013.01.	Accuver APAC Limited 100%	Domaniewska 37 street, 02-672 Warsaw, Poland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판매 및 서비스업	5,061
Innowireless India Services Private Limited	2016.05.	100.0	Office No.1204, Cyber One, Plot No.4 &6, Sector 30-A, Vashi, Navi Mumbai, Maharashtra 400703, India	통신용 시험/계측장비 및 시스템 관련 서비스업	428
Accuver Shanghai Co., Ltd.	2019.10.	Accuver APAC Limited 100%	Room 310, 3F, Dobe Bund WE, No. 422 Hankou Road, Huangpu District, 200001 Shanghai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관련판매 및 서비스업	977
(주)웨이티즈	2015.08.	5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0, 5 층	차량간 통신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1,828
(주)명성라이픽스	1991.11.	100.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 길 117	차량용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0,222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매출액은 이동통신
사업부문(매출액 중 52.3%)과
Automotive
사업부문(47.7%)으로 구분**

LIG아큐버 매출액은 크게 이동통신 사업부문(매출액 중 52.3%)과 Automotive 사업부문(47.7%)으로 구분되고, 다시 이동통신 사업부문은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 제품군, 통신 T&M 제품군, 스몰셀 제품군, 방산 제품군, 용역 및 기타로 세분된다. Automotive 사업부문은 2024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대부분 연결 자회사 명성라이픽스 매출액이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별 매출비중은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21.2%, 빅데이터 제품군 5.6%, 통신 T&M 제품군 3.9%, 스몰셀 제품군 9.6%, 방산 제품군 6.8%, 용역 및 기타 5.2%, Automotive 47.7%이다.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은 무선망
품질 측정 솔루션, 무선망 품질
분석 솔루션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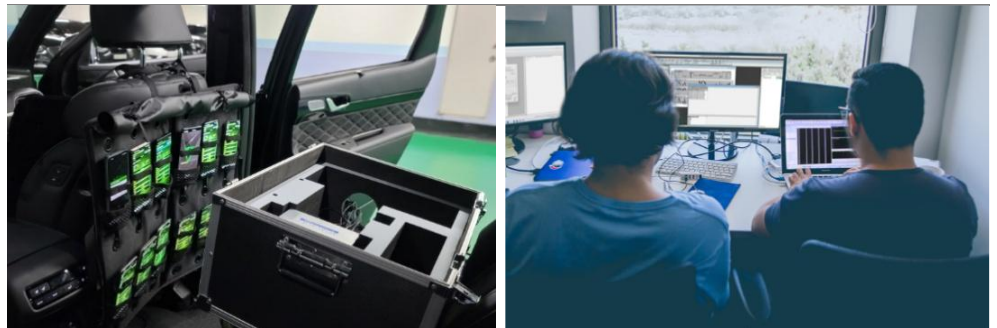
1)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매출액 중 21.2%)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은 크게 무선망 품질 측정 솔루션, 무선망 품질 분석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무선망 품질 측정 솔루션은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무선 전파환경 및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차량 측정, 도보 측정, 원격 측정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XCAL, XCAL-Mobile 등이 있고, 주요 고객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기지국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이다.

무선망 품질 분석 솔루션은 측정된 무선 전파환경 및 송수신 데이터를 가공하여 여러 형태의 분석 결과물로 제공하는 분석 솔루션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XCAP, XCAP-Cloud가 있다.

무선망 품질 측정, 무선망 품질 분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빅데이터 & AI 기반 솔루션은
통신망 전반의 장애와 서비스
품질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

2)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매출액 중 5.6%)

빅데이터 & AI 기반 솔루션은 통신망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대고객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 AEGIS가 있다.

AEGIS는 3G/4G/5G용 Core Network Big Data Solution 측정/분석 솔루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고 분석하는 제품이다. 주요 기능은 1) 통신망 에러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 제공, 2) 액세스 네트워크별 5G 서비스 체험 고객 수와 트래픽 사용량을 비교한 데이터 제공, 3) 5G 고객의 접속망 종류(gNB, eNB)별 트래픽 비율 비교 기능 제공, 4) 5G 단말별 고객수 비교 기능 제공, 5) Heavy User 트래픽 점유율과 gNB/eNB 트래픽 비율 비교 기능 제공 등이다.

AEGIS-O의 경우 오픈랜 서비스 장비로, RU(Radio Unit, 무선 송수신 장치), DU(Distributed Unit, 분산 장치), CU(Centralized Unit, 집중 장치) 등 기지국 각 부품별로 개별 성능 및 상호 호환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품이다. 이외에 딥 러닝 기반의 고수준 영상품질 분석 솔루션 'VQML', DBMS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가 정의한 대시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인 'XDV' 등 제품들도 있다.

AEGIS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통신 T&M 제품군은 네트워크 시험 자동화/가상화 장비, 계측장비로 구분

3) 통신 T&M 제품군(매출액 중 3.9%)

통신 T&M 제품군은 크게 네트워크 시험 자동화/가상화 장비, 계측장비 2가지로 구분된다.

네트워크 시험 자동화/가상화 장비는 Lab Automation이다. 이는 현장의 실제 무선 환경을 실험실 내에 동일하게 구성하여,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가지 않아도 네트워크 테스트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관련 제품으로 XCAL-MTS, XCAT-MAIS, XCAT-AISC 등이 있다.

계측장비는 이동통신 무선국 측정 및 기지국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량의 휴대용 계측 솔루션으로, 주요 제품으로 XCAT-IXA, XCAT-Optic Master, XCAT-CAN 등이 있다.

네트워크 시험 자동화/가상화 장비(XCAL-MTS Shelf, XCAL-MTS Rack)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계측장비(XCAT-IXA, XCAT-Optic Master)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몰셀은 통신 트래픽의 분산을 위한 용도로 기지국 기능을 보완하는 용도의 초소형 기지국 제품

4) 스몰셀 제품군(매출액 중 9.6%)

스몰셀이란 초소형 기지국 제품이다. 스몰셀은 통신 트래픽의 분산을 위한 용도로 기지국 기능을 보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망 주파수 대역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통신신호의 도달거리가 짧아지며 기지국 설치 수요는 구조적으로 높아졌으나 이를 모두 대형의 기지국으로 투자할 수 없으므로, 음영지역 커버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스몰셀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 중이다. 스몰셀은 전파가 잘 닿지 않는 셀 경계구역 등 음영지역이나 건물 내부에 주로 설치된다. 스몰셀 제품 주 고객은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들이다.

스몰셀 제품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방산 제품군은 고속 신호처리 솔루션과 FPGA 기반의 고성능 수신 플랫폼 제품 등 디지털 송수신기, 전자전 분야 제품

5) 방산 제품군(매출액 중 6.8%)

LIG아큐버는 2023년경부터 방산 제품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2023년 방산 매출액 51억 원), 2025년 연매출액은 약 127억 원에 이르렀다.

디지털 송수신기, 전자전 분야 제품들로 고속 신호처리 솔루션과 FPGA 기반의 고성능 수신 플랫폼 제품 등이 있다. 대표적 제품인 XSOM은 AMD/Xilinx Zynq™ UltraScale+™ 기반의 고속 Digital 신호 변환 확장형 모듈 제품이다. XPLATFORM LIBRARY는 Xilinx ZYNQ 시리즈의 펌웨어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함수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제품이다.

XSOM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위성 탑재체 및 전기적 시험 장비 제품은 위성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위성 통신 환경을 모사하여 신호 손실과 왜곡을 재현하는 솔루션이다. 관련 제품에는 XCAT-SPACE가 있다. 동 제품은 5G NTN(Non-Terrestrial Network, 비지상파 네트워크) 및 위성 D2D 통신 테스트를 위한 고성능 채널 에뮬레이터(타 프로그램 혹은 장치를 모방하는 장치/솔루션)로, 다양한 NTN 시나리오를 랩에서 정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XCAT-SPACE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용역 및 기타는 고객의 측정 관련

용역 및 기타 용역, 임대료 수입 등

6) 용역 및 기타(매출액 중 5.2%)

고객의 측정 관련 용역이나 기타 용역, 임대료 수입 등이다.

**Automotive 부문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유통 사업과
V2X 시험 장비 사업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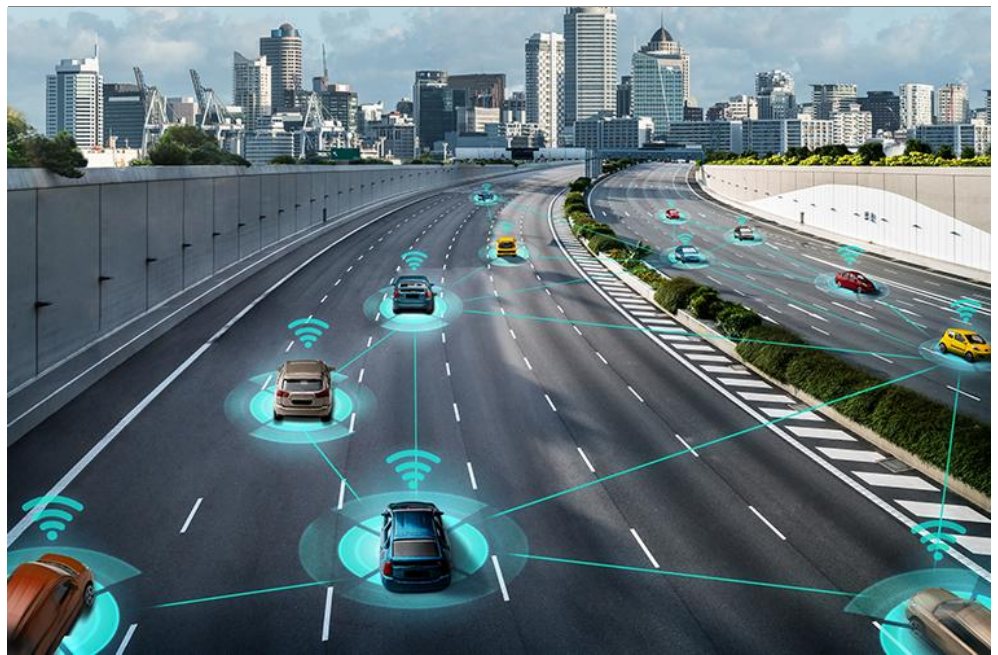
7) Automotive 사업부문(매출액 중 47.7%)

LIG아큐버는 인수를 통해 2024년초부터 Automotive 사업을 전개 중이다. 즉 자동차 반도체 유통 사업과 V2X 시험 장비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Automotive 사업 대부분의 매출액은 현재 연결 자회사 명성라이픽스의 매출액이다. 명성라이픽스가 영위하는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유통사업으로, 고객은 국내/외 대형 완성차 관련 부품사이다. 명성라이픽스는 MPS, Microchip 등 글로벌 차량용 칩셋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터치IC, 메모리반도체, 파워IC 등 반도체들을 매입, 고객 맞춤형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고객에게 공급한다. 주 고객은 현대모비스, Trulyopto, Winnercom, LG전자 등이다.

또 다른 연결 자회사 웨이티즈의 경우 V2X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다. V2X 모듈 솔루션은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 성능을 검증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아직 웨이티즈 매출액은 미미하다. 2025년 기준 연매출액은 15억 원 수준이다. V2X 연구개발 스타트업, 국내 대형 완성차 기업, 해외 완성차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솔루션을 납품한다. 향후 자율주행 산업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웨이티즈의 V2X 시험 장비 사업은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V2X 통신 가상 조감도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고객은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업체, 완성차 및 전자부품사, 방산 기업 등

**고객군은 이동통신 관련 외에
다양한 산업으로 다변화 중**

LIG아큐버의 고객은 전통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기업들이었다. 2023년경부터 동사가 방위산업 관련 부품/모듈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LIG D&A 등 방위산업 기업들이 고객으로 포함되었고, 2024년부터 Automotive 사업을 본격화하여 완성차 및 전자부품사들도 주요 고객이 되었다. 즉 2023~2024년경부터 동사 고객군은 이동통신 관련 외에 다양한 산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참고로 동사의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액 중 47.18% 수준이다.

최대주주 등은 (주)LIG 외 6인

최대주주 등은 (주)LIG 외 6인으로 지분을 30.11% 보유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LIG아큐버의 최대주주는 (주)LIG로, 지분 30.0%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 등은 (주)LIG 외 6인으로 지분을 30.11%이다.

2018년 11월, 케이씨지아이헬리오스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동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020년 11월에는 LIG넥스원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당시 동사는 LIG그룹 계열회사로 정식 편입되었다. 이후 2022년에는 주식회사 LIG로 다시 동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최대주주 (주)LIG는 LIG그룹의 지주회사로, 2025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7,381억 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949억 원, 1,081억 원이었다. (주)LIG는 엘아이지넥스원(주), (주)엘아이지휴세코, (주)엘아이지시스템, (주)LIG아큐버, (주)엘아이지홈앤빌, (주)동아일렉콤 등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출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 (주)LIG 재무현황

(단위: 억 원)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LIG	7,831	627	6,754	1,164	949	1,081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4Q25말 기준 재무현황



산업 현황

1 이동통신 산업 개요

이동통신 산업은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무선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통신 인프라 산업

이동통신 산업은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을 무선·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통신 인프라 산업이다.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은 플랫폼 사업자와 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며, 통신사는 이용자와 서버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기지국, 코어망, 인터넷망, 서버를 거쳐 전달된다. 무선접속망은 단말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송망은 기지국과 코어망 및 데이터센터를 연결한다. 코어망은 가입자 인증, 데이터 경로 제어, 트래픽 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산업 참여자는 크게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장비 사업자로 구분된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장비 사업자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SKT, KT, LG유플러스의 통신 3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은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전자, ZTE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내 통신 장비사들은 이들 통신사 및 글로벌 장비사를 대상으로 안테나, RF 부품, 광전송 장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운영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통신장비 사업자의 실적은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에 연동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장비 사업자는 서로 다른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은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에 의해 결정되며, 반복적인 통신요금 수입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반면 통신장비 사업자의 실적은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통신사가 기지국 증설, 전송망 구축, 코어망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경우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며, 투자 축소 시 관련 수요도 감소하는 구조를 갖는다.

투자 사이클은 표준화, 주파수 할당, 통신사 투자 결정, 네트워크 구축, 최적화 및 운영 단계로 진행

이동통신 산업의 투자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표준화, 주파수 할당, 통신사 투자 결정, 네트워크 구축, 최적화 및 운영 단계로 진행된다. 표준화 단계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와 장비·칩셋 업체가 기술 규격을 수립하고 검증하며, 이후 정부의 주파수 할당을 거쳐 통신사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다.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는 기지국 장비와 전송장비, 코어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구축 이후에는 품질 측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분석·최적화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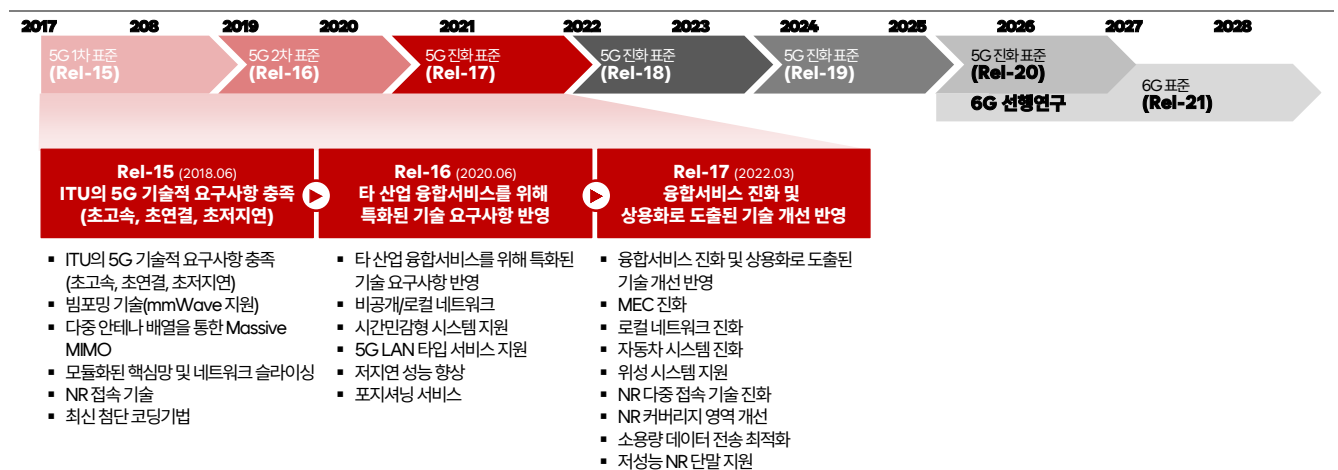
최근에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네트워크 구조 고도화에 따라 네트워크 규모와 운영 복잡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장비 투자뿐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사는 트래픽 모니터링, 장애 분석, 품질 측정,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 분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밸류체인은 네트워크 구축 중심에서 운영 효율화와 품질관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무선망 최적화 및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 중요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투자 사이클은 국제 표준과 국가별 주파수 정책을 기반으로 형성

이동통신 투자 사이클은 국제 표준과 국가별 주파수 정책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이 세대별 통신 기술의 상위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동통신 규격을 공동으로 개발/결정하는 표준화 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 규격을 릴리즈(Release) 단위로 제정한다. 5G 네트워크는 Release 15에서 규격화되었으며, 이후 Release 16·17·18을 거치며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사업자 투자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통신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고, 국립전파연구원(RRA)이 전파 인증 및 기술기준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검증을 수행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주파수 관리 및 산업 진흥 업무를 지원한다. 이처럼 이동통신 산업은 글로벌 표준과 국가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 속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표준화 일정과 주파수 정책 변화는 통신사의 투자 시점과 장비 시장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3GPP 5G 표준화 현황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5G 및 5G SA(Standalone) 시장 현황

5G SA는 5G 전용 코어망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슬라이싱, 초저지연 서비스 등 5G 핵심 기능을 구현

이동통신 기술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에 대응하며 세대별로 진화해 왔다. 2G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중심의 통신 환경을 구축했으며, 3G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4G LTE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크게 개선하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확산시켰고, 영상·SNS·모바일 게임 등 데이터 중심 서비스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 산업용 IoT 확산으로 네트워크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규모와 연결기기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LTE 중심 네트워크만으로는 향후 통신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5G는 초고속·대용량 통신(eMBB),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URLLC), 대규모 사물통신(mMTC)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존 세대가 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통신 서비스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5G는 스마트폰을 넘어 산업용 IoT,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클라우드, AI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의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초기 5G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기대만큼의 체감 변화를 제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통신사가 NSA(Non-Standalone) 방식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NSA는 무선 접속 구간에서는 5G 기지국을 활용하지만, 네트워크 제어와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코어망은 기존 LTE 코어망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기존 LTE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른 상용화와 투자비 절감에는 유리했지만 LTE 코어망의 제약을 극복하지는 못하므로, NSA는 5G가 지향하는 초저지연 서비스, 네트워크 슬라이싱, 대규모 IoT 연결 등 핵심 기능들을 완전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5G SA(Standalone)는 무선망과 코어망을 모두 5G 기반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5G 전용 코어망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초저지연 서비스, 대규모 단말 연결, 엣지 컴퓨팅 등의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용도별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서비스별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공공안전망·기업 전용망 등 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5G SA 전환은 단순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5G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 세대별 발전 과정

세대	국내 상용화	핵심 특징	대표 서비스
2G	1996	디지털 음성통신	음성통화, SMS
3G	2006~2007	모바일 데이터	인터넷, 이메일, 영상통화
4G LTE	2011	고속 모바일 인터넷	동영상, SNS, 모바일 게임
5G NSA	2019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5G 무선망 + LTE 코어망)	4K/8K 스트리밍, 클라우드 게임, 초고속 다운로드
5G SA	2021~	초저지연/산업용 서비스(5G 전용 코어망)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기업 전용망, 산업용 IoT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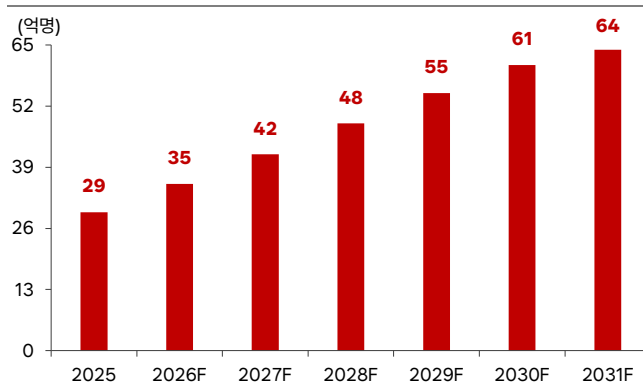
글로벌 5G SA 투자 및 상용화는 5G 시장 성장과 함께 본격화되는 추세

5G는 2019년 상용화 이후 빠르게 보급되며 글로벌 이동통신의 주력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2026년 1분기 기준 글로벌 5G 가입자는 31억 명을 넘어섰으며, 2031년에는 64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G가 처리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비중은 2025년 48%에서 2031년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G 네트워크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성능도 커버리지 확보에서 품질과 서비스 차별화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빠른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NSA 방식을 우선 도입하던 과거와 달리, 초저지연 통신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SA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방향에서도 확인된다. 5G SA에 투자하는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는 2020년 말 61개사에서 2025년 11월 181개사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5G 투자 사업자도 412개사에서 649개사로 확대됐지만, SA 투자 사업자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 5G 상용화 단계에서 커버리지 확보에 집중되었던 투자가 5G 전용 코어망 구축과 네트워크 고도화 등 SA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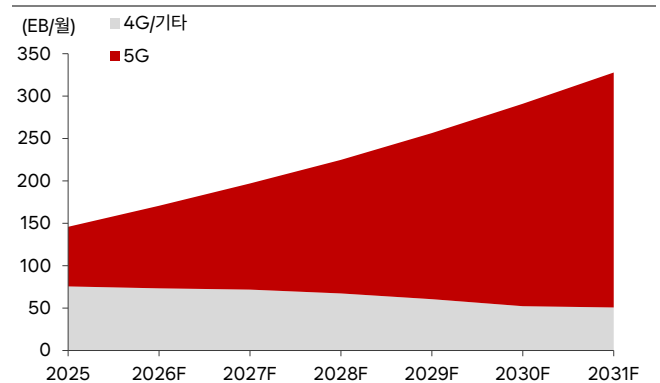
투자 확대는 실제 SA 상용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95개 사업자가 5G SA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이는 2024년 말 대비 약 42%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5G 서비스 가운데 SA 비중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3%p 상승했다. 아직 전체 5G 서비스의 대부분은 NSA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규로 상용화되는 네트워크는 점차 SA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5G 가입자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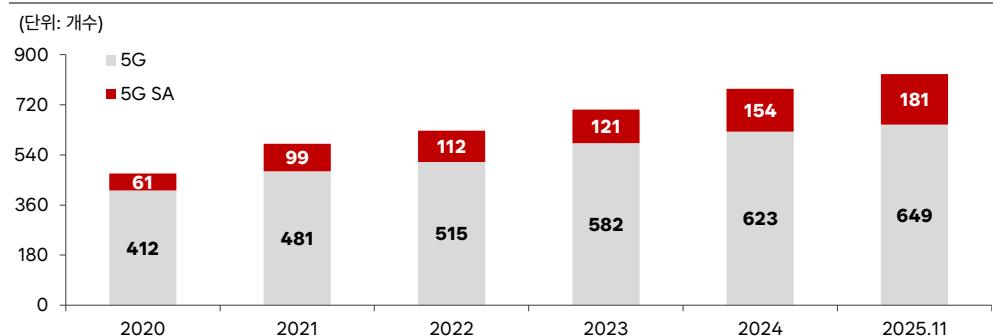
자료: ERICSSON,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자료: ERICSSON,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5G/5G SA 투자 사업자 수



자료: GS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5G SA 전환 투자 수혜는
5G 코어망 장비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국내 SA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총 370MHz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면서, 기존 5G 무선국을 2026년 말까지 SA 코어망에 연동하고, 이후 구축되는 신규 무선국 역시 SA 기반으로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동통신 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NSA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점진적으로 SA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별로 SA 전환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KT의 경우 2021년 국내 최초로 SA를 상용화했으며, 2026년 들어 적용 단말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5G SA 서비스는 초기에는 일부 단말과 서비스 중심으로만 운영된 만큼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코어망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NSA 기반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정부 정책에 맞춰 SA 전환을 추진 중이다. SKT는 네트워크 검증을 거쳐 2026년 4분기 SA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추가 자본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연내 SA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SA 전환에 따른 수혜는 통신장비 밸류체인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환의 핵심은 기존 무선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LTE 코어망을 5G 전용 코어망으로 전환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직접적인 투자 수혜는 5G 코어망 장비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영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5G 기지국과 안테나, RF 장비는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해 기지국(RAN)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SA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서비스별 품질 보장이 본격화되면서 네트워크 운영 복잡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축된 코어망의 품질을 검증하고 서비스를 측정·분석·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품질관리와 무선망 최적화, 계측,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분석 솔루션의 중요성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G SA 전환에 따른 통신장비 밸류체인별 변화

밸류체인	SA 전환 시 변화	주요 수혜 기업
코어망네트워크 S/W	5G 전용 코어망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 고도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품질관리망 최적화·계측	SA 성능 검증 및 네트워크 최적화 수요 확대	LIG아큐버
스몰셀·실내망	실내 무선국 구축 확대	솔리드, LIG아큐버
기지국(RAN)	기존 장비 재활용	직접 수혜 제한적
RF-안테나	신규 교체 수요 제한적	직접 수혜 제한적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6G 이동통신 시장 동향

6G는 AI-native한 지능형 통신 인프라 구현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6G는 5G를 잇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국제 표준에서는 IMT-2030으로 정의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3년 'Recommendation ITU-R M.2160'을 승인하며 6G의 비전과 여섯 가지 핵심 사용 시나리오, 15개 핵심 역량을 제시했다. 이후 2026년에는 IMT-2030을 위한 최소 기술성능요구(Tech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TPR)를 공개하며 6G 표준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실제 기술 규격은 3GPP가 Release 단위로 개발하며 현재는 Release 20에서 6G 사전 연구(Pre-study)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표준은 2028~2029년경 확정되고 상용화는 2030년 전후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6G 산업은 상용 서비스보다 국제 표준과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에 위치한다.

6G는 단순한 전송속도 향상이 아니라 AI를 네트워크 운영에 내재화(AI-native)한 지능형 통신 인프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가 초고속(eMBB), 초저지연(URLLC), 대규모 사물통신(mMTC)을 통해 사람과 기기를 연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6G는 이를 확장하여 AI-native, 통합 센싱·통신(ISAC),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HRLLC), 몰입형 통신(Immersive Communication), 어디서나 연결(Ubiquitous Connectivity), 대규모 통신(Massive Communication) 등을 핵심 사용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ITU는 네트워크 성능 향상뿐 아니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안 및 복원력(Security & Resilience), 디지털 격차 해소(Connecting the Unconnected), Ubiquitous Intelligence를 IMT-2030 즉 6G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하며, AI와 통신의 융합을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 역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넘어 몰입형 XR,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피지컬 AI 등 초저지연·고신뢰 통신이 필요한 산업용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6G의 목표 전송속도는 최대 1Tbps 수준으로 5G의 이론상 속도인 20Gbps를 크게 상회하며, ITU는 6G를 통해 AI와 디지털 산업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초고용량·초저지연 통신 수요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6G 특징 비교

구분	5G (IMT-2020)	6G (IMT-2030)
국제 표준	IMT-2020	IMT-2030
핵심 비전	사람-사물 초연결 네트워크	AI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대표 사용 시나리오	초고속 모바일 브로드밴드(eMBB)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URLLC) 대규모 사물통신(mMTC)	몰입형 통신(Immersive Communication)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HRLLC) 대규모 통신(Massive Communication) 유비쿼터스 연결(Ubiquitous Connectivity) AI-통신 융합(AI and Communication) 통합 센싱·통신(ISAC)
목표 최대 전송속도	20Gbps	1Tbps
네트워크 특징	데이터 전달 중심	AI 기반 자율 운영·센싱·컴퓨팅이 통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국제 표준화	완료	2028~2029년(예상)
상용화 시기	완료	2030년 전후(예상)

자료: ITU, 3GPP,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6G는 기존 5G에서 구축된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

6G는 기존 5G에서 구축된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평가된다. ITU는 IMT-2030 핵심 역량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5G 기술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설명했으며,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 Alliance,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연합) 역시 기존 5G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6G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5G와 6G 사이에는 5G-Advanced라는 중간 진화 단계가 존재한다. 5G-Advanced는 3GPP Release 18부터 표준화가 시작된 5G의 고도화 버전으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AI-RAN), Open RAN, 네트워크 자동화(Network Automation), 위성통신(NTN) 등 향후 6G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다. 이후 Release 20에서는 6G 사전 연구가 병행되고 있으며, Release 21부터는 본격적인 6G 기술 규격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6G는 현재 구축되고 있는 5G SA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어를 계승하는 동시에 AI-native 네트워크와 ISAC, NTN(위성통신) 구현을 위해 무선 접속망(RAN)의 고도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또한 7~24GHz 어퍼미드(FR3) 대역이 차세대 후보 주파수로 검토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지국, 안테나, RF 시스템 등의 신규 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이동통신 세대가 기지국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였다면, 6G는 AI-RAN과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운영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고도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6G 경쟁은 국제 표준과 핵심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 중

글로벌 6G 경쟁은 상용 서비스보다 국제 표준과 핵심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Next G Alliance를 중심으로 통신사, 반도체 기업, 클라우드 기업, 장비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RAN, Open RAN, AI-native Network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IMT-2030 Promotion Group을 중심으로 시험망 구축과 특허 확보를 확대하며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Hexa-X와 SNS JU 프로젝트를 통해 노키아와 에릭슨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과 AI 네트워크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Beyond 5G 전략 아래 위성통신(NTN)과 초고주파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K-Network 2030」 전략을 발표했으며, 총 4,407억 원 규모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어퍼미드(FR3) 대역, AI-RAN, NTN, 소프트웨어 중심 네트워크, 에너지 절감 기술 등으로, 현재는 본격적인 상용화보다 핵심 기술 확보와 국제 표준 대응에 연구개발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6G 개발 전략

국가	대표 프로젝트	중점 분야	주요 특징
미국	Next G Alliance	AI-RAN, AI-native Network, Open RAN	통신사·반도체·클라우드 기업 중심의 민간 연구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선도
중국	IMT-2030 Promotion Group	시험망 구축, 특허 확보, 국제표준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와 표준 선점 추진
유럽	Hexa-X / SNS JU	AI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성	노키아, 에릭슨 중심의 공동 연구 및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
일본	Beyond 5G	NTN, 초고주파, 위성통신	정부·통신사가 공동으로 위성통신과 차세대 주파수 기술 개발
한국	K-Network 2030	AI-RAN, NTN, FR3, SW 기반 네트워크	국제 표준 참여와 핵심 네트워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추진

자료: Next G Alliance, IMT-2030 Promotion Group, Hexa-X, Beyond 5G Promotion Consortiu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향후 6G 산업의 성과는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수익모델 형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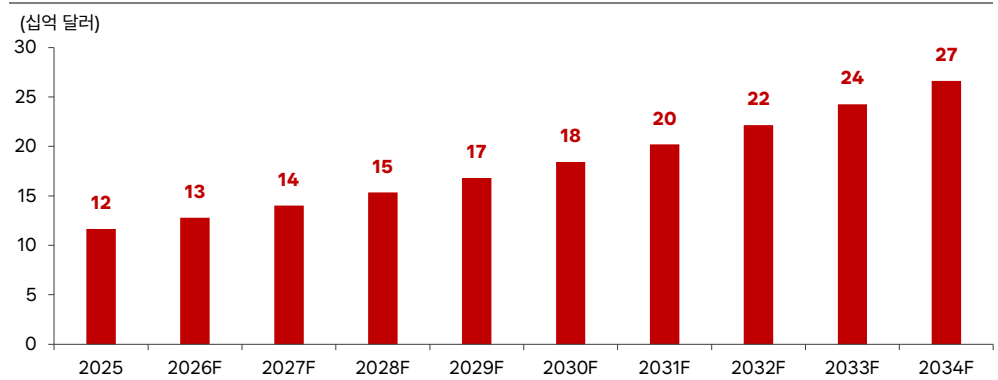
6G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도입 필요성과 사업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AI의 산업 전반 확산으로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협업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몰입형 XR 등은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보다 높은 수준의 초저지연성, 네트워크 신뢰성,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AI의 활용 범위가 데이터센터를 넘어 제조, 물류, 모빌리티 등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통신망 역시 단순한 데이터 전달을 넘어 AI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인프라로 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6G는 단순한 전송속도 향상보다 AI 기반 네트워크(AI-native), 통합 센상·통신(ISAC),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HRLLC) 등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사업성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5G는 상용화 당시 다양한 미래 서비스가 제시됐지만 실제 상용화 이후에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FWA(Fixed Wireless Access, 고정무선접속) 중심으로 활용되며 기대했던 수익모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6G 연구개발 역시 기술 개발과 주파수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모델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결국 6G의 핵심 과제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에 있다. 향후 통신사의 핵심 수익원은 단순한 연결성 제공보다 기업 전용망(Private Network), Network API,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등 B2B 중심의 부가가치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소비자가 단순히 더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AI와 디지털 산업의 확산에 따라 기업 고객이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익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6G 산업 성과는 네트워크 구축 자체보다는 AI 산업 확산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B2B 수익모델이 형성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동통신 산업은 네트워크 구축 중심에서 네트워크 운영과 최적화 중심으로 경쟁 축이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품질 관리, 장애 분석, 운영 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글로벌 통신 서비스 품질관리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실적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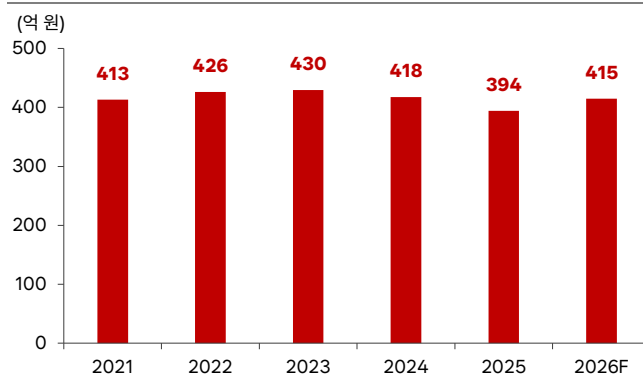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의 실적 회복 기대

이동통신 사업부문 내 핵심 2개 제품군인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사업의 전년 대비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은 전통적인 동사 주력 사업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매출액은 2021년 413억 원에서 2024년 418억 원으로 안정적인 매출액 규모를 보여주는 분야이다. 2025년 동 매출액은 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역성장했으나, 2026년 전년 대비 5.3% 성장한 415억 원으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국내 고객 중심으로 네트워크 품질 측정 및 분석 수요가 완만히 회복되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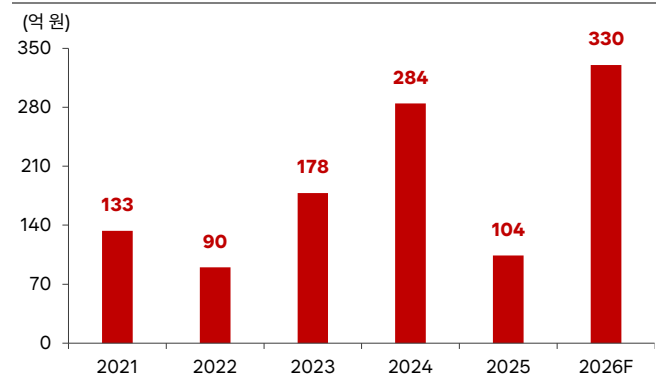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매출액의 경우, 2021년 133억 원에서 2024년 218억 원으로 이동통신 사업부문 내에서 2021년 이래 가장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 분야이다. 2025년 동 매출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5% 역성장하여 매우 부진했다. 2025년 실적 부진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사업적 특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가 개시될 시 하드웨어 서버 형태로 초반에 대량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적은 용역과 유지보수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2024년 다수 프로젝트 개시가 물리면서 서버 위주로 큰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이후 2025년 용역, 유지보수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2025년 관련 매출액 규모는 기대 대비 적었다. 그러나 2026년,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관련 신규 프로젝트 증가가 기대된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5G SA 상용화 투자 진행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 딥러닝 기반 영상 품질 분석 등 각종 수요가 하반기에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6년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매출액은 전년 104억 원 대비 226억 원 성장한 33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방산 제품군 高 성장 기대

LIG D&A(舊 LIG넥스원)와 연계한 방산 제품군의 高 성장 기대

LIG아큐버 방산 제품군 사업의 高 성장이 기대된다. LIG아큐버는 2020년 LIG그룹 계열사로 정식 편입된 이후 그룹 내 핵심 기업인 LIG D&A(舊 LIG넥스원)와 연계한 방산 부품/모듈 사업 본격화를 모색했다. 2023년 방산 제품군 매출액은 51억 원을 시현하며 관련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방산 제품군 매출액은 2024년 77억 원, 2025년 127억 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LIG아큐버는 2025년 방산 제품군 연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정식으로 방산 제품군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표기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다.

LIG 아큐버의 방산 제품군 제품들은 디지털 송수신기, 전자전 분야 보드 등 모듈 부품, 위성 탑재체 부품, 지상지원 장비 등 다양한 모듈/부품들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일시스템 탐색기 모듈 분야에도 진출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고객은 LIG그룹 계열사 LIG D&A

방산 제품군 주 고객은 LIG그룹 계열사이자 대형 방산기업인 LIG D&A이다. 현재 대부분 매출은 LIG D&A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고객으로 한국항공우주, 해외 방산기업들이 있으나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와 LIG D&A는 향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 자동차 산업을 비유하여 언급해보면 완성차 기업에 통상 전장 부품/모듈 전문기업이 계열사로서 밀접하게 협업하듯, 동사와 LIG D&A도 향후 협업의 폭과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IG D&A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

LIG D&A(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종합방위산업체로, 주요 사업영역은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 미래사업 등이다. 전체 5,389명 임직원 중 59.3%(3,198명)가 분야별 전문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다. 2025년말 기준 LIG D&A는 수주잔고로 26.2조 원을 보유, 견고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

LIG D&A는 1976년 설립 이래(당시 사명 금성정밀공업) 사업 초기 발칸레이다, 선박용 레이다 개발 및 판매로 성장했다. 1994년에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1999년 국내 최초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를 개발했으며, 2004년 국내 최초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을 개발했다. 2007년 사명을 ‘LIG넥스원’으로 변경했다. LIG D&A는 2010년초부터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국내 최초 유도무기 ‘해성’을 중남미향으로 수출했고, 2019년 유도로켓 ‘비궁’ 제품으로 미국 국방부 주관 시험평가프로그램에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2021년 중동지역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마-이란 전쟁을 통해 천궁Ⅱ 등 여러 제품들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26년 3월에는 사명을 기존 LIG넥스원에서 ‘LIG D&A’로 변경했다.

LIG D&A 핵심역량은 R&D

모든 사업영역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중



자료: LIG 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LIG D&A,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인적자원과 인프라 보유

연구개발사업이 회사 성장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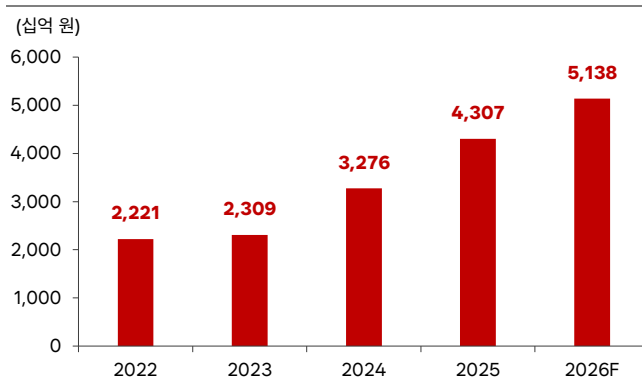
- 연구개발사업 수행이 양산사업으로 이어지며 매출 성장에 기여
- 국내 전력화 완료된 무기체계는 잠재적 수출상품의 의미 보유
- 연구개발사업 수주의 핵심은 회사의 R&D 역량

자료: LIG D&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LIG D&A의 최근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래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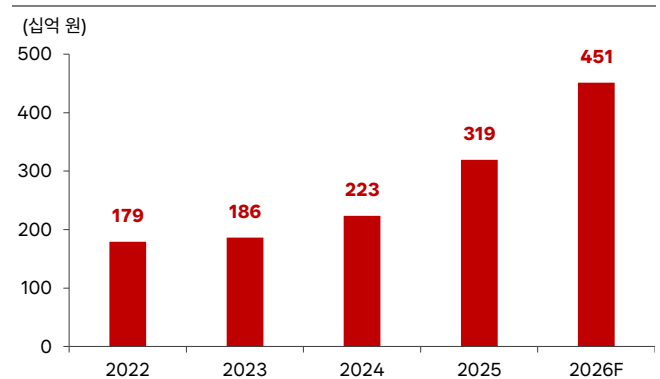
LIG D&A의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3조 원, 3,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44.6% 성장했다. 2025년 연간 수출 비중은 54.9% 였다. 2025년말 기준 수주잔고는 26.2조 원으로, 전년말 수주잔고 23.4조 원 대비 2.8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이라크 천궁, 국내 L-SAM, 전자전기, 천궁-III 등 사업 수주에 기인했다. 각종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이 점증하는 등 우호적인 대외 사업환경이 지속 예상되어 향후 LIG D&A의 실적 흐름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LIG D&A 실적 전망이 견조한 만큼, 이는 LIG아큐버 방산 제품군 성장에도 긍정적인 전망이다.

LIG D&A 연도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LIG D&A 연도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방산 제품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8% 성장한
201억 원 전망**

LIG아큐버 방산 제품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8% 성장한 201억 원으로 전망한다. 전자전 분야 보드, 위성 탑재체, 지상지원장비 관련 모듈/부품 공급이 견조한 가운데 신규로 미사일시스템 탐색기 관련 모듈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산 제품군 매출액은 주 고객과 함께 추세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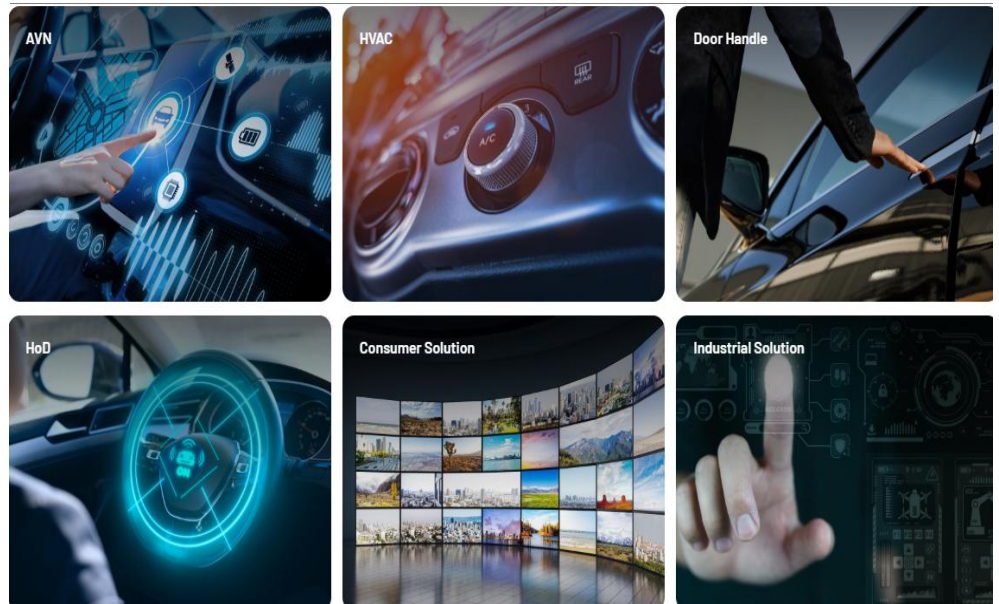
Automotive 사업부문 캐시카우 역할 지속 기대

**Automotive 사업부문은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

LIG아큐버의 Automotive 사업부문은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개요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는 2024년 1월 명성라이픽스, 웨이티즈 2개의 차량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Automotive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웨이티즈는 아직 연매출액 10~20억 원 수준으로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Automotive 사업부문은 명성라이픽스의 차량용 반도체 유통사업이 대부분인 모습이다.

명성라이픽스는 1991년 설립 이후, 3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유통, 기술지원, 모듈 생산 및 공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자부품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 경기도 과천에 본사를 두고, Microchip, MPS, Macronix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반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용 및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맞춤형 모듈 설계 및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명성라이픽스는 MPS 등 글로벌 차량용 칩셋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터치IC, 메모리반도체, 파워IC 등 반도체들을 매입, 고객 맞춤형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고객에게 공급한다. 주 고객은 국내/외 대형 완성차 관련 전장 부품사로 현대모비스, Trulyopto, Winnercom, LG전자 등이다.

명성라이픽스 사업분야 -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유통, 모듈 생산/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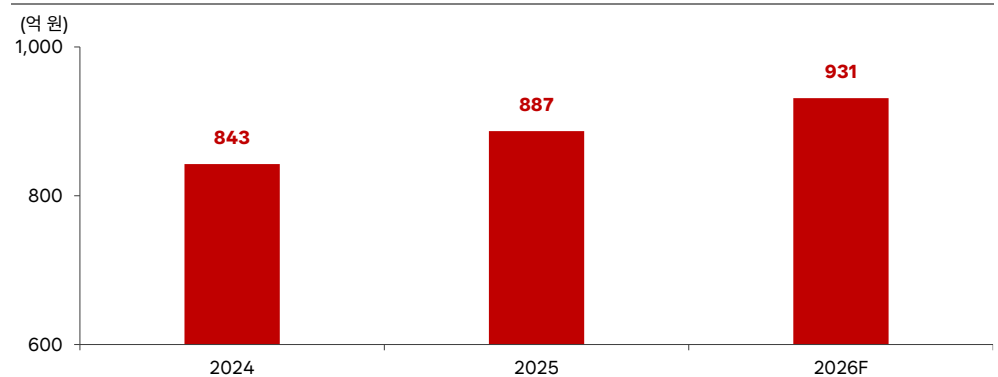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utomotive 사업부문 매출액은 2024년 843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887억 원을 시현했다.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성장한 931억 원을 전망한다. 마진은 5~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의 대부분은 명성라이픽스가 차지할 전망이며 주 고객인 현대모비스 등의 반도체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쉽게도 웨이티즈의 경우 아직 관련 시장 규모가 작아 전년 수준인 15억 원 내외의 연매출액을 예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웨이티즈 매출액 성장세가 견조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2026년에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Automotive 사업부문은 명성라이픽스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명성라이픽스는 회사 내 캐시카우 역할을 맡아 꾸준한 매출 및 영업이익 발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율주행 산업이 붐업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인 2029년경부터는 웨이티즈의 V2X 시험 장비 솔루션 매출액 본격 성장을 기대한다.

LIG아큐버 Automotive 사업부문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861억 원(-1.9% YoY),
-11억 원(적자전환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861억 원, -11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 1,897억 원 대비 -1.9% 역성장한 1,86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방산 제품군과 용역 및 기타, Automotive 사업부문이 증가했으나,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의 소폭 감소와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통신 T&M 제품군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전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사업별로 매출액을 리뷰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매출액은 2024년 418억 원에서 2025년 394억 원으로 5.6% 역성장하였다.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 및 품질 측정과 측정 결과 분석 수요는 꾸준했으나 일부 국내고객 수요 감소가 있었다.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매출액은 2024년 284억 원에서 2025년 104억 원으로 63.5% 급감했다.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의 경우 2024년 다수 프로젝트 개시가 몰리면서 서버 위주로 큰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이후 2025년 용역, 유지보수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2025년 관련 매출액 규모는 기대 대비 적었다.

통신 T&M 제품군 매출액은 2024년 140억 원에서 2025년 73억 원으로 48.1% 급감했다. 통신 T&M 제품군의 경우 기지국의 품질상태를 감시하거나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데 2025년 관련 수요가 부진했다.

스몰셀 제품군 매출액은 2024년 145억 원에서 2025년 179억 원으로 23.1% 성장했다. 2023년 일본 라쿠텐항 대량 제품 공급이 마무리된 후 2024년 수요 공백이 있었으나 일본 소프트뱅크 및 NTT도코모 등이 증가하여 2025년 이를 일부 만회하였다.

2025년 방산 제품군 매출액은 12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액 77억 원에서 64.9% 증가했다. 방산 제품군 연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2025년 정식으로 방산 제품군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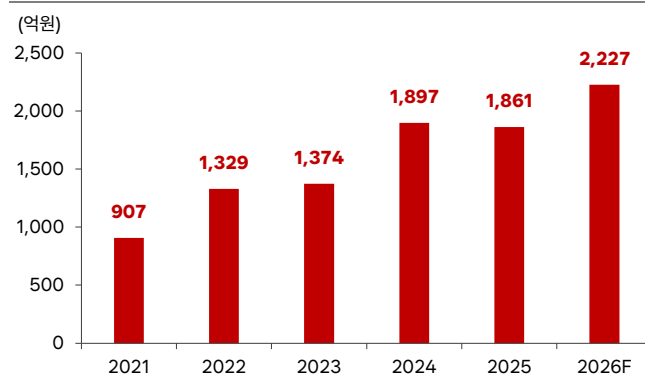
용역 및 기타 매출액은 2024년 68억 원에서 2025년 97억 원으로 43.9% 증가했다. 일부 측정 용역 건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Automotive 사업부문 매출액의 경우 사업 첫해인 2024년 843억 원에서 2025년 887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이는 주요 고객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기인하였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2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적자전환 하였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솔루션 제품군, 통신 T&M 제품군의 매출액 감소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스몰셀 제품군 매출액이 2022~2023년 대비 낮은 레벨로 내려온 것도 전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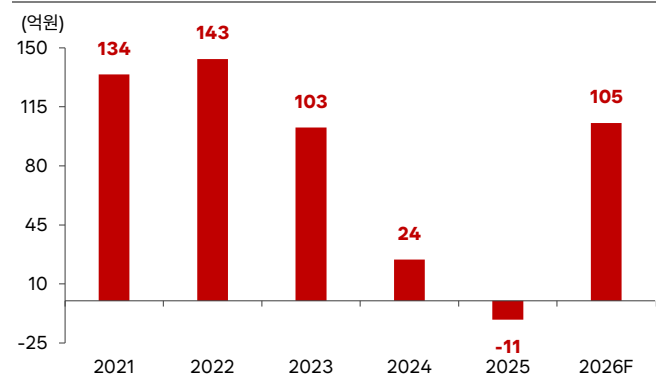
참고로, 2025년 연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76.4%, 24.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이 모두 각각 0.6%p, 1.2%p 악화된 수치였다(VS 2024년 연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각각 75.8%, 22.9%).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F 실적 전망

1Q26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455억 원(+20.0% YoY), -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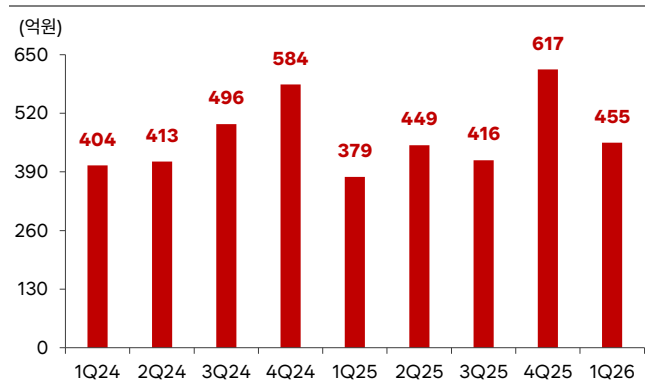
원(적자지속 YoY) 기록

1Q26 매출액은 455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매출액 379억 원 대비 20.0%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특히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통신 T&M 제품군, 방산 제품군의 매출액이 견조하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 매출액은 1Q25 84억 원에서 1Q26 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 원 증가했다.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매출액의 경우 1Q25 8억 원에서 1Q26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억 원 증가했다. 통신 T&M 제품군 매출액은 1Q25 8억 원에서 1Q26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억 원 증가했다. 방산 제품군 매출액의 경우 1Q25 1억 원에서 1Q26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억 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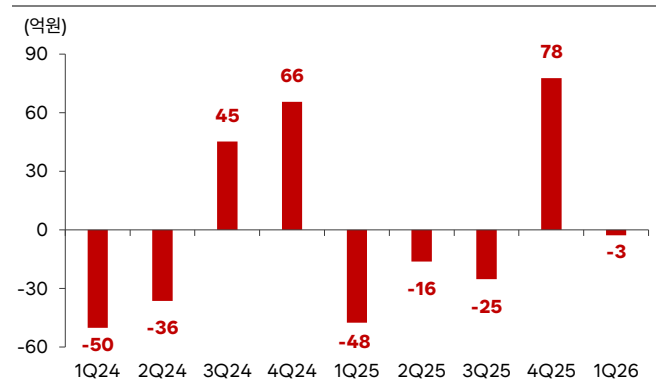
1Q26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8억 원 대비 크게 개선된 -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제품믹스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LIG아큐버의 경우 통상 실적 흐름은 상저하고의 경향을 강하게 띈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적자를 의미있게 축소하였기에 연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연간 매출액**2,227억 원(19.7% YoY),****영업이익****105억 원(흑자전환 YoY)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227억 원(+19.7% YoY), 105억 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을 부문별로 전망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무선망 최적화 제품군의 경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성장한 415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의 부진을 일부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분기 견조한 수요로 이는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빅데이터/AI 솔루션 제품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7.6% 성장한 330억 원으로 전망한다. 2H26 국내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5G SA 상용화 구축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의 수혜가 기대되는 점을 고려했다.

통신 T&M 제품군의 경우 2026년 매출액을 전년 대비 3.4% 성장한 75억 원으로 추정했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성장을 보였으나 사업 환경상 단기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수적으로 전망한다.

스몰셀 제품군의 2026년 매출액은 전년 수준인 181억 원으로 전망했다. 관련 수요는 2023년 라쿠텐향 큰 수요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고 보았다. 즉 이동통신사들의 스몰셀 구축 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를 반영했다.

방산 제품군의 경우 2026년 매출액을 전년 대비 57.8% 성장한 201억 원으로 예상했다. 주 고객인 LIG D&A와의 시너지, 및 실적 성장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고 성장을 기대한다.

용역 및 기타 2026년 매출액은 전년 수준인 94억 원을 전망한다. 측정 용역은 전년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Automotive 사업부문의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성장한 931억 원으로 추정했다. 명성라이픽스 위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웨이티즈의 경우 아직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년 수준인 연매출액 15억 원 수준을 전망하였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한 105억 원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제품믹스가 일부 개선되어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몰셀 제품군은 아직 2023년 매출 규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네트워크 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일부 반영하여 2026년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되 그 폭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4.7%로 2025년 -0.6% 대비 5.3%p 개선을 전망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907	1,329	1,374	1,897	1,861	2,227
① 이동통신 부문	무선망 최적화	413	426	430	418	415
	빅데이터/AI 솔루션	133	90	178	284	330
	통신 T&M	76	147	171	140	75
	SmallCell	117	494	524	145	181
	방산	-	-	-	-	201
	용역 및 기타	168	171	71	68	94
	합계	907	1,329	1,374	1,055	1,296
② Automotive 부문	-	-	-	843	887	931
영업이익	134	143	103	24	-11	105
지배주주순이익	152	135	108	25	-12	99
YoY 증감률						
매출액	-2.5	46.5	3.4	38.1	-1.9	19.7
영업이익	-2.7	6.8	-28.3	-76.3	적전	흑전
지배주주순이익	15.7	-11.3	-19.4	-76.6	적전	흑전
영업이익률	14.8	10.8	7.5	1.3	-0.6	4.7
지배주주순이익률	16.7	10.1	7.9	1.3	-0.6	4.5

자료: LIG아큐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F PER 21.3배로 거래 중

동사 멀티플은 코스닥 시장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

2026년 7월 1일 기준 LIG아큐버 시가총액은 2,118억 원 수준이다. 2026F LIG아큐버의 예상 PER은 21.3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 28.8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Peer로 쏠리드, 에치에프알 선정

LIG아큐버는 오랜 기간 통신용 시험 장비, 계측장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2023년부터 방산 사업을, 2024년 Automotive 사업을 본격화하며 사업을 활발히 다각화 중이다. 동사의 경우 사업 부문이 기존 통신 장비에서 이종 산업도 병행하는 등 변모하고 있어 정확히 유사한 기업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동사와 유사한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전통적인 통신 장비/부품 전문기업인 쏠리드, 에치에프알, 케이엠더블유, 에이스테크 등이 있다. 동사 Peer로 쏠리드와 에치에프알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케이엠더블유, 에이스테크는 영업적자가 지속 중이어서 제외했다. 기업간 비교 지표로는 2026F PER을 선택했다.

2026F 기준 3개사의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21.3배 VS 쏠리드 16.2배 VS 에치에프알 16.8배).

동사가 Peer 대비 상대적으로 PER 할증을 받는 것은 무선망 최적화-계측 및 빅데이터/AI 분석 등 네트워크 운영-품질 관리 솔루션 사업 영역에 차별적으로 포진하여 5G SA 전환의 직접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LIG그룹 캡티브(LIG D&A) 기반으로 방산 매출액의 고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Automotive, 위성통신 사업 등 기존 통신 투자 사이클에만 좌우되지 않는 신성장동력을 함께 보유한 점도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한다.

쏘리드 PER은 16.2배로 LIG아큐버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다. DAS-중계기 등 무선망 장비를 주력으로 복미 주파수 경매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나, 방산/Automotive/위성 등 통신 외 성장 옵션을 보유한 LIG아큐버와 달리 사업이 통신장비 업종에 집중되어 멀티플 재평가 동력이 통신 투자 사이클에 연동되는 점이 상대적인 할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에치에프알 PER은 16.8배로 LIG아큐버 대비 할인 거래되고 있다. 에치에프알은 Private 5G(특화망) 전문 기업으로 FTTH, Open RAN 등 유/무선 통신장비를 함께 공급하고 있으나, 특화망 시장의 수익화가 지연되며 영업적자가 이어진 만큼 흑자전환 가시성 측면에서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8,303	6,589,384	3,712,325	3,917,205	4,013,474	11.3	15.4	8.7	0.8	1.3	2.1
코스닥	929	521,321	332,661	361,183	128,347.66	211.4	112.5	28.8	1.5	2.1	3.3
LIG아큐버	27,850	212	190	186	223	62.1	N/A	21.3	0.9	1.0	1.2
쏘리드	11,280	685	331	295	336	8.8	12.3	16.2	1.3	1.3	1.7
에치에프알	19,160	255	157	142	145	N/A	N/A	16.8	1.5	1.1	1.6
동종업종 평균						-	-	16.5	1.4	1.2	1.6

주: 2026년 07월 01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향후 5G SA 투자 본격화에 따른
이동통신 실적 회복 및 Captive
기반의 방산 매출 고성장 지속 시
동사 기업가치 상승 가능**

LIG아큐버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8.2% 상승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동사 기업가치가 하락하였기에 2025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2025년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36.5%였던 만큼, 2025년 LIG아큐버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5년 실적이 부진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전환(-11억 원) 하였기에 주가 반등 폭은 제한적이었다.

2026년 들어 LIG아큐버 기업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전년 말 주가 22,400원 대비 26.06.29 현재 주가는 27,500원으로 22.8% 상승했다. 2026년 1~4월 동사 주가는 크게 상승하여 4월 21일 주가는 장중 62,500원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5~6월 주가가 크게 레벨 다운하는 모습이다. 1분기 실적 기대감과 2H26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5G SA 투자 기대감 등이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했으나, 5~6월 들어 차익실현 및 코스닥 시장 전반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은 5월 9.9%, 6월 14.8%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국내 통신 3사의 5G SA 상용화 투자가 본격화되어 무선망 최적화·빅데이터/AI 솔루션 등 핵심 제품군의 실적이 회복되고, LIG D&A를 기반으로 한 방산 매출의 고성장이 이어진다면 동사 기업가치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LIG아큐버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 지연될 시 동사 실적에 부정적일 가능성

**SKT와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지연 내지 변동 시
부정적인 영향 발생 가능**

각종 업계 및 언론에 따르면 2H26에 SKT와 LG유플러스가 5G SA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예상과 달리 이들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지연 내지 변동된다면 LIG아큐버의 실적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5G SA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통신망을 여러 개의 가상 전용망처럼 나눠 사용하는 기술) 등의 기능적 우수함이 있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5G SA 기반 서비스가 표준화되었다는 평이 다수이고, 미국의 경우도 전국망 단위 5G SA 구축이 활발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KT는 5G SA 상용망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5G SA 투자는 투자 부담이 큰 반면 소비자가 체감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많은 상황이다. 향후 5G SA 관련 특정 기업 또는 공공기관용 전용망 시장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지가 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속도를 좌우할 것이고, 관련 부품/장비업체들의 실적 전망도 이에 일정부분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329	1,374	1,897	1,861	2,227
증가율(%)	46.5	3.4	38.1	-1.9	19.7
매출원가	808	881	1,438	1,422	1,610
매출원가율(%)	60.8	64.1	75.8	76.4	72.3
매출총이익	520	493	459	439	617
매출이익률(%)	39.1	35.9	24.2	23.6	27.7
판매관리비	377	390	435	450	512
판매비율(%)	28.4	28.4	22.9	24.2	23.0
EBITDA	181	149	81	44	160
EBITDA 이익률(%)	13.6	10.9	4.3	2.4	7.2
증가율(%)	5.0	-17.4	-45.5	-45.8	262.3
영업이익	143	103	24	-11	105
영업이익률(%)	10.8	7.5	1.3	-0.6	4.7
증가율(%)	6.8	-28.3	-76.3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2	30	34	-3	1
금융수익	95	75	72	34	41
금융비용	95	52	46	37	40
기타영업외손익	3	7	8	-0	0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46	133	59	-14	106
증가율(%)	-4.6	-9.0	-55.8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11	24	30	-2	7
계속사업이익	135	108	29	-12	9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35	108	29	-12	99
당기순이익률(%)	10.1	7.9	1.5	-0.6	4.5
증가율(%)	-11.3	-19.4	-73.2	적전	흑전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135	108	25	-12	9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35	47	180	-85	128
당기순이익	135	108	29	-12	99
유형자산 상각비	23	31	34	34	36
무형자산 상각비	14	16	23	22	19
외환손익	75	26	5	9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2	-120	93	-110	-26
기타	-80	-14	-4	-28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8	-0	-424	35	-3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6	71	-66	54	-0
유형자산의 감소	2	0	34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2	-22	-71	-13	-30
기타	-2	-49	-321	-7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	232	7	-76	44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44	-11	5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264	0	0	0
배당금	-17	-24	-27	-9	-8
기타	-6	-8	-10	-56	0
기타현금흐름	-5	8	37	-2	0
현금의증가(감소)	-1	288	-199	-129	141
기초현금	604	603	890	691	562
기말현금	603	890	691	562	703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323	1,605	1,500	1,420	1,663
현금성자산	603	890	691	562	704
단기투자자산	96	1	119	42	42
매출채권	411	482	343	435	488
재고자산	177	135	291	301	341
기타유동자산	36	96	57	79	89
비유동자산	532	584	854	861	837
유형자산	334	375	479	466	460
무형자산	48	52	217	213	194
투자자산	3	28	38	51	51
기타비유동자산	147	129	120	131	132
자산총계	1,855	2,189	2,354	2,281	2,500
유동부채	507	500	556	541	658
단기차입금	0	0	219	200	250
매입채무	187	193	88	95	113
기타유동부채	320	307	249	246	295
비유동부채	39	29	63	68	7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9	9
기타비유동부채	39	29	63	59	69
부채총계	546	530	619	609	736
자배주주지분	1,309	1,659	1,693	1,672	1,764
자본금	34	38	38	38	38
자본잉여금	261	520	520	520	520
자본조정 등	-1	-1	-1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2	39	41	41
이익잉여금	1,015	1,100	1,097	1,076	1,168
자본총계	1,309	1,659	1,735	1,672	1,764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7.0	18.5	62.1	N/A	21.3
P/B(배)	1.7	1.2	0.9	1.0	1.2
P/S(배)	1.7	1.5	0.8	0.9	1.0
EV/EBITDA(배)	8.9	7.6	12.7	29.8	10.2
배당수익률(%)	1.0	1.3	0.6	0.4	0.4
EPS(원)	1,996	1,430	333	-158	1,307
BPS(원)	19,430	21,824	22,269	21,991	23,198
SPS(원)	19,718	18,117	24,951	24,475	29,293
DPS(원)	350	350	120	100	100
수익성(%)					
ROE	10.8	7.3	1.5	-0.7	5.8
ROA	8.2	5.4	1.3	-0.5	4.2
ROIC	25.3	14.4	3.2	-2.9	8.8
안정성(%)					
유동비율	261.1	321.0	269.8	262.4	252.7
부채비율	41.7	31.9	35.7	36.4	41.7
순차입금비율	-52.2	-52.6	-33.6	-23.3	-27.2
이자보상배율	148.8	76.5	1.8	-1.4	12.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8	0.7	0.8	0.8	0.9
매출채권회전율	4.5	3.1	4.6	4.8	4.8
재고자산회전율	12.5	8.8	8.9	6.3	6.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LIG아큐버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03	LIG아큐버-매출 및 이익 성장 재개
2022.11.09	이노와이어리스-5G 산업 차세대 리더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있는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